

2. 인문계열(2교시)

제시문 및 문제

가

자원의 무기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온쇼어링(on-shoring)’이다. 생산기지를 자국 내에 두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자국 내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생산 시설을 인건비 등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반대되는 말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함께 자주 언급됐던 ‘리쇼어링(re-shoring: 생산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온쇼어링’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지만 자국 내에만 생산 시설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니어쇼어링(near-shoring: 본국으로의 이전이 어려울 경우 인접 국가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것)’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동맹 국가들 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용어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그저 썬’ 지역이 더 이상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재난 상황 혹은 정치적인 갈등 상황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상호 연결성을 통해 수많은 혜택을 맛본 인류가 과거와 같은 냉전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를 통해 자리 잡은 고도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일상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견고하고, 상호 호혜적이어서 말처럼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타가 되었다. 이에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이 제시됐다. ㉡팬데믹(pandemic)을 교훈으로 삼아 지속 가능성,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여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 왔던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에 근간한 세계화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세계화의 만조(滿潮)는 이미 지났다. 이제 남은 건 물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다’라고 평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이던 1990년 미국 맥도널드의 모스크바 입점이 세계화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면, 맥도널드의 러시아 시장 철수는 거대하고 급격한 탈세계화 흐름을 상징한다.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쇠퇴 중이었다. 서방국가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주의(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고개를 들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패권 경쟁으로 번져나갔다. 이런 와중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것은 세계화의 바탕이 된 국제법 존중과 상호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졌음을 뜻한다. 무엇보다 중국이 불법을 자행한 러시아를 비난하기는커녕 뒤에서 암묵적으로 지원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보이며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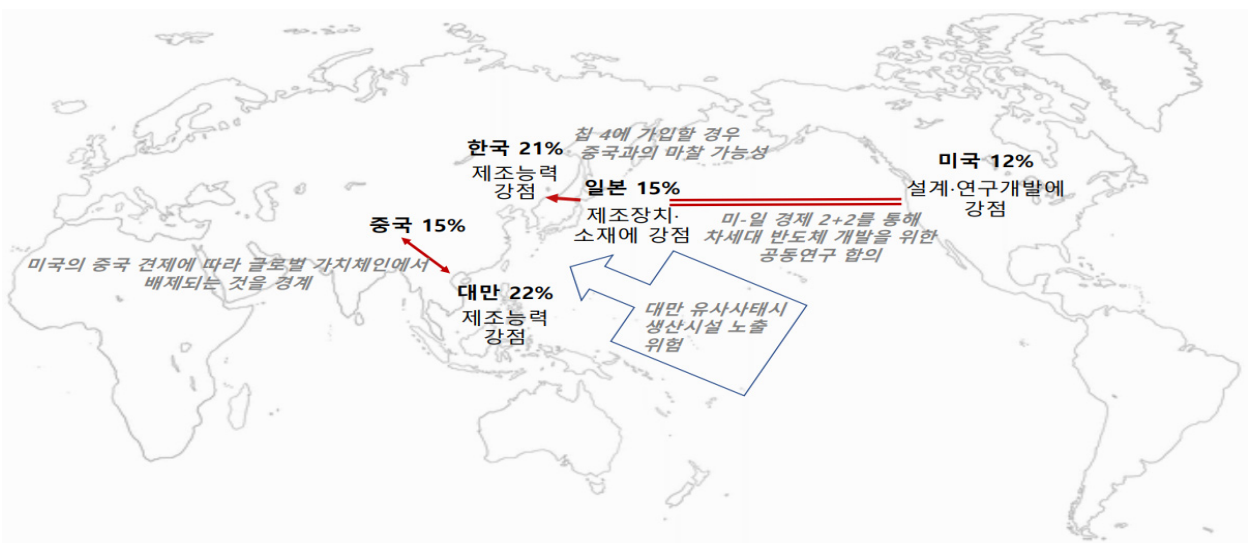
지난 수십 년간 각국 경제는 세계화의 수혜를 크게 입었다.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에 생산설비를 집중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증시는 장기 호황을 구가했다. 기술 개발로 생산단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도 억제됐다. 인플레이션 없는 장기 성장의 골디락스*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COVID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며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쇠퇴하고 있다. 기존 세계화의 퇴조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그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 원자재와 식량, 반도체 등의 공급망 경색과 물류대란, 신냉전 양상이 우려되는 대립 구도 속에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됐던 기존의 경제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이 막히면 거래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오르고, 일부 국가들이 특정 상품이나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순식간에 에너지와 식량 공급, 금융 시스템의 단절을 경험한 세계 각국은 이제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운송할 수 있도록 확실한 우방국들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이나 원자재를 비우방국가에 의존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JP 모건에 의하면 애플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아이폰14 물량의 5%를 인도에서 만들고, 차츰 인도 내 생산을 늘려 2025년에는 전체 아이폰의 25%를 인도산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미·중 갈등의 심화 탓에, 생산과 판매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애플마저 '탈 중국 노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구글 역시 스마트폰 신제품 픽셀7 물량 일부를 인도 공장에서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서방과 그에 맞서는 중국·러시아를 두 축으로 삼는 **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골디락스: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억제되는 상태

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3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4자 연합인 '칩4(Chip4)'를 제안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다. 아래의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팹리스(설계)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함께 파운드리(위탁생산) 강자 대만과 메모리 강자 한국, 주요 기술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동맹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중국이 선언한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자 반도체 경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칩4와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전체 반도체 생산에 기여하는 비율>

(출처: 미국반도체산업협회 SIA)

중국은 대만과 일본이 중국에 맞서 '반도체 장벽'을 세우고 있음을 비판하며, 반도체 외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임을 명시하고 한국은 미국의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수출액 중 60%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파운드리 공장이 전무한 미국이 원천 기술 보유국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화된 분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법과 합의를 무시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키워드는 '투자, 공조, 경쟁'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선언 직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였다. 무역, 공급망, 환경, 조세 등 4대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위해 무역 규범 수립에 무게를 둔 것이다. IPEF의 쿼드(Quad) 성명이 의미하듯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가치 규범이 중심이 되는 공급망으로 이분화되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 시스템에 대한 위협은 경제·이데올로기의 문제와 맞물려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2019년 한일 역사 갈등이 빚어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등을 볼 때, 경제적 상호의존은 종종 경쟁국과 상대국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된다. 한중 수교 30년이 되었지만 중국과의 신뢰 관계가 온전히 구축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80%, 수입품의 64%가 중간재이므로 이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면 중국 역시 피해가 만만치 않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품 및 반제품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형태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2대 투자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다. 한국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G7 국가보다 높은 33.4%(2020년 기준)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와 대중국 수출 타격이라는 난제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문제 1

제시문 <가>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제시문 <나>의 ㉠과 ㉡을 토대로 분석하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변화가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문 <다>의 ㉢과 ㉣의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가>의 국제 정세 속에서 제시문 <라>의 지도처럼 반도체 동맹이 전개될 때 한국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기술하고, 제시문 <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한국의 대응 방향을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900±100자)